

Seminis®

콜리플라워

병충해 정보

 **흥농씨앗**  **중앙씨앗**

<http://www.seminiskorea.co.kr>

콜리플라워 << 노균병

발생원인	잎에 주로 발생하며 기온이 낮은 계절에 많이 나타난다.
병징	증상은 처음에 백색 또는 담갈색의 병반이 나타나고 그 후에 하얀 곰팡이가 착생하게 된다. 특히 야간온도가 10도내외의 저온이 되면 발생이 심하면 비료분이 떨어졌을때 쉽게 발생하므로 비배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방제대책	주기적으로 다이센엠45, 벤레이트등을 살포하여 발생을 억제하도록 한다. 특히 비가 많이 온 후 비료분이 유실되어 비료가 부족할 때 발생이 심하므로 비가 많이 온 후에는 추비에 유의한다.

콜리플라워 << 세균성흑반병



발생원인	잎이나 줄기, 화퇴 등에 발생한다. 기온이 낮을 때 비교적 발생이 많다.
병징	병징은 처음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병반이 생겨 흑부병과 병징이 유사하나 대개 병반부가 건조하여 고사하며 찢어지는 것이 많고 병반부에 곰팡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세균에 의해서 발병하며 잎이 기계적인 상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제대책	발병하면 즉시 병든 잎을 제거하고 전염을 막기 위하여 약제를 살포한다.

콜리플라워 << 연부병

발생원인	발병하면 즉시 병든 잎을 제거하고 전염을 막기 위하여 약제를 살포한다.
병징	처음에는 화퇴의 일부가 백색으로 썩어 악취를 풍기며 병이 진전되면 적갈색으로 완전히 썩어버린다.
방제대책	석회부족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기비로 반드시 소석회를 시용하며 발병하게 되면 동수화제 500배액이나 마이신류를 살포하고 병든 포기는 일찍 제거한다.

콜리플라워 << 줄나방

발생원인	길이가 극히 적고 가는 충으로 한해 수회 발생한다
병징	엽의 뒷면에 기생 하여 표피만을 남겨 놓고 식해하며 다발시에는 생육이 늦어지고 특히 어 린 묘 시기에는 콜리플라워의 생장점을 먹어 심지현상(芯止現象)을 유발시킨다.

방제대책	슈리사이드 및 노몰트, 란네이트 등을 유묘기부터 살포하며 초기에 철저히 구제하여야 한다. 육묘기에 상기 약제를 1~2회 예방하는 의미에서 살포해 주는 것이 좋다.
-------------	--

콜리플라워 << 야도충

발생원인	5~6월, 9~10월에 주로 발생한다. 먹는 양이 많아 심하면 잎이 없어지고 축만 남아 생육이 억제된다.
병징	결구후기에 발생하면 구내부를 가식하여 온통 구멍투성이가 되어 상품성이 없게 된다. 특히 노숙유충(老熟幼蟲)은 약제 저항성이 강하므로 일찍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제대책	사이아녹스, DDVP, 다이다지논 등을 정식 초기에 살포해 준다. 외엽을 야도충이 가해한 흔적이 있는 식물체 밑의 흙을 가볍게 파보면 야도충이 숨어 있으므로 발생초기에 심하지 않으면 손으로 구제해도 된다.

콜리플라워 << 배추흰나비

발생원인	청벌레라고도 불리우며 봄 가을에 주로 발생하여 외엽을 식해한다.
병징	
방제대책	한해 5~6회 정도 발생하는데 DDVP등 일반 살충제로 비교적 쉽게 구 제된다.

Seminis®